

채권단, 현대상선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

□ 금융채권단,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

-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조건부 자율협약을 추진할 계획임

- ▷ 일정 : 3.22일 채권단 실무자 회의 및 안건부의
3.29일 자율협약 개시 결정
- ▷ 내용 : 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3개월간 유예,
외부 회계법인 실사 이후 채무재조정 방안 수립
(용선료 조정, 사채권자 등의 채무재조정 동참 조건부)

- 현대상선에 대한 이번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은 회사 자구안 및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조정 협상 등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등을 통한 회사의 정상화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

- 채권금융기관 차원의 구체적 정상화 방안 도출을 통해 회사의 해외 용선료 조정 작업 및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등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함

- 동 조건부 자율협약은 용선료 인하, 사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으로, 이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가 되는 조건임

- ☞ 자율협약 :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법률 등 법적 강제력에 근거하지 않고, 참여 기관 상호간 및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만 배타적으로 유효한 협약을 수립 체결하여 채무자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반 절차임. 즉, 기촉법을 적용하지 않고 채권단 자율로 협약을 제정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절차이며 참여 기관들의 100% 동의로 개시

□ 사채권자 집회의 부결이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

- 금일(3.17일) 현대상선 사채권자 집회 안건이 부결되었으나, 이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통상 겪는 진통이며 현대상선의 정상화 추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
 - * 설혹 금일 3개월 기한연장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가 가결되었다 하더라도, 향후 정상화 방안에 요구되는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에 관한 추가적인 집회가 필요
- 금번 부결에 따라 4월 7일자 공모사채에 대한 연체가 불가피해졌으나, 과거에도 (주)STX 사채권자 집회 부결 후 연체상태에서 채 가결된 사례가 있음
- 회사는 용선료 협상 성사가 가시화되는 시점 등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기에 모든 회차의 공모사채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하여 형평성 있는 채무조정안을 도출할 계획임

□ 회사 정상화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 적극적인 동참 필요

- 현대상선은 '16.2.2자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세부절차 진행중임
- 현대증권 매각 등 자구계획 이행중이며, 용선료 협상 등 비협약채권자 채무조정도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
- 채권단은 본건 자율협약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손실최소화와 현대상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
-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을 통한 동참만이 회사 정상화의 유일한 방안인만큼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

※ 문의처 : 산업은행 홍보실 박찬호 팀장(☎787-6072)

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2실 현희철 팀장(☎787-3956)